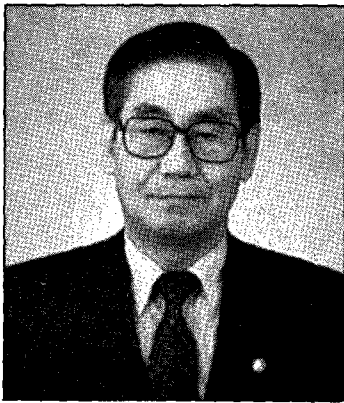


多讀家이며, 온건 合理主義者

제13대 科技處長官에 金鎮炫씨



政府는 지난 11월 9일 前 鄭根謨 과기처 장관의 후임으로 金鎮炫 동아일보상무겸 논설주간을 임명했다.

金長官은 연합신문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1962년부터 동아일보에 줄곧 몸담아왔다. 1980년도 언론숙성때 해직돼 한동안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3共시절에는 정부로부터 재무부 이재국장 요

청을 받았을만큼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英語에도 능통하여 각종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한국의 경제이론을 퍼왔다. 1968년 李漢彬전부총리 등과 함께 한국미래학회를 결성하면서부터 과학기술과 인연을 맺게된 金長官은 과학과 기술진흥이 경제부흥의 요체임을 역설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일해왔는데 이러한 점이 이번에 발탁된 배경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金長官은 취임사에서 과학주권시대인 2000년대에 대비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과학기술인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과학기술계의 개혁 또한 필요하다는 뜻을 비쳤다.

전형적인 論客이며 온건 합리주의로 정평이 나있는 新任 金長官은 「한국경제정책 20년사」, 「한국의 선택」 등 다수의 著書を 갖고 있으며, 제헌위원을 지낸 金英基씨의 아들로서 閔泰善여사와의 사이에 4男을 두고 있다. 취미로는 골프와 등산을 즐긴다.

〈略 歷〉

- 1936년생(54세)
- 경기 安城출신
- '58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
- '57년 연합신문 기자
- '62~'80년 동아일보기자, 편집부국장
방송보도국장, 논설위원
- '65년 기자협회 부회장
- '68년 관훈클럽 총무
- '81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84년 동아일보 논설위원 실장
- '87년 동아일보 상무이사
- '88년 행정개혁위원
- '89년 동아일보 논설주간
- '90년 관훈클럽 信永연구기금 이사장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위원

原産漫評

(尚由金)

